

# 여가활동에 대한 젠더와 노동시장참여의 차이 분석

## -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기초로 -

문 속 재(이화여대 교수) · 박 민 정(이화여대 박사과정)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전업주부가정의 주부의 여가시간(5시간 37분)은 남편의 여가시간(4시간 17분)보다 많은 반면, 맞벌이가정의 주부의 여가시간(3시간 25분)은 남편의 여가시간(4시간 14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가에 대한 성차비교 연구의 전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취약한 상황임을 가정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성의 상황(노동시장참여 등)에 따라 남성과의 비교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여가활동에 대한 젠더비교는 성차와 노동시장참여 형태의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활동에 대한 성별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따라 여가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원자료는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3,051명의 표본 가운데 연구대상자인 기혼자 남성과 여성 1,9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검증, 교차분석 그리고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평일 여가활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일의 여가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둘째, 기혼남성과 여성의 여가활동 관련 비용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은 남성의 경우 식당, 근린공원, 산 등의 순위였고, 여성의 경우 종교시설, 아파트 내 공터, 대형마트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인 기혼자들의 성별에 따라 여가생활의 만족도 수준(5점척도)은 남성(3.14점)과 여성(3.16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기혼 남성과 여성의 여가활동에 요구되는 자원(시간, 금전, 공간 등)이나 여가활동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만족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평일과 휴일의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여가시간은 모두 차이가 나타나, 비취업여성인 전업주부들의 여가시간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비용지출이나 공간사용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여부에 따른 여가만족도는 취업여성이 높았고, 행복수준도 비취업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들은 여가활동시간은 적으나,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으며, 여가 만족도와 행복수준도 역시 전업주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업주부들은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은 많으나, 여가활동과 관련된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의 여가문화 특성이 소비지향성을 나타내는 내는 것으로, 아웃도어활동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을 위해 일정한 비용이 요구되면서 시간적 영향력 보다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기혼남성과 비교해 볼 때 기혼여성들의 여가활동은 휴일동안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여가활동 내용의 차이를 보이는 문제로 나타나는 반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여가비용이나 만족도 문제는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